

# 하늘의 씨앗

The Good Seed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 Wycliffe Canada Korean Ministries Newsletter

## 특집 점음이 된다

복음을 위한 청년들의 경주: Race to 2025  
섬김은 달라도 꿈은 하나: 헌신하는 청년들  
정글선교체험훈련(JJO): 영락교회 청소년부  
지난 행사:

글로벌 컨퍼런스

1.5세 지향적 사역

기획시리즈: 시너지창출선교

 Wycliffe

Partners in Bible Translation

3권 2호 / Fall 2010

## 3권 2호 / Fall 2010

Published by / 발행처:  
Korean Ministries  
Wycliffe Bible Translations of Canada  
위클리프캐나다 한인사무국  
4-14 Steinway Blvd.,  
Etobicoke, ON M9W 6M6  
Phone 416-996-0345 (강창석 선교사)  
Eastern Regional Office  
Toll Free: 866-702-5273  
Fax: 416-675-7504  
Kroffice\_Canada@Wycliffe.ca  
www.wycliffe.ca

Publisher / 발행인:  
KM Director / 한인사무국디렉터  
ChangSeok Kang / 강창석선교사

Editors / Translators / Checkers  
편집 / 번역 / 교정  
Daniel Yoon / 윤기태  
Gyooujun Lee / 이규준  
Gilsue Lee / 이길수

Design / 디자인  
Julee Park / 박주리  
Printed by / 인쇄인  
Pro Design & Print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여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변혁되게 하는 사역

### 표지 설명:

이번 호의 특집인 청년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경주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편집된 사진이다. 이 경주의 끝은 그리스도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며 결국에는 열방을 불러 제자 삼고자 원하시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거룩한 경주이다 (빌 3:14).

### 제호 설명:

정산 정해수선생(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 은퇴인수집사)께서 위클리프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붓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의 한인 사무국에서는 잘스센터에서 실시하는 Jungle Jump Off (JJO) 프로그램에 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토록 여러해 동안 애를 썼지만 2년을 기다려야하는 문제등으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아프리카의 정글을 경험하며 선교훈련을 받을수 있는 곳이 바로 노스 캐롤라이나의 잘스 센터에서 하는 아주 귀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인데 바로 지난 주 토론토 영락교회의 청소년 20명이 네분의 인솔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은혜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허락하신 주님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스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대한 관심과 인기속에 실시해 온 JJO 프로그램을 내년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려고 준비중인데 여기에 한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요소도 반영되도록 저희 한인 사무국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몇해전 과테말라로 비전 여행을 갔을때 감명받은것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일을 이번에 정글 점프 오프 에 참가한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더욱 새롭워집니다. 과테말라 시내 복판 깊은 낭떠러지에 어마어마하게 큰 쓰레기장이 있는데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쓰레기 뒤지며 살아가는 꽃제비들을 위해 교육하고 선교하는 20대 중반의 미국인 선교사부부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악취는 말 할 것도 없고 시계도 못차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치안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거기서 백인 젊은 부부가 "쓰레기에서 보물을" (from garbage to treasure)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 했습니다. 특히 부인선교사는 임신중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여러가지 어려움등 사역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질문 중에 왜 당신들은 젊은 나이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힘들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계셨을때 선교지에서 태어난 MK (선교사 자녀)였는데 부모가 하신일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MK)이 귀한 선교사역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선교교육과 훈련을 청소년시절이나 그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해 주고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도시에서만 생활하며 성장한 자녀들 보다 지방에서 자연과 함께 성장한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번 정글 체험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다녀온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자연과 친화적인 환경에서 선교교육과 필요한 훈련이 되도록 배려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 청년들의 복음을 위한 경주

# RACE TO 2025



김 하림 / Harim Kim

나는 지난 4월 “Check-It-Out”에 참석했다. 이 모임은 내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온전한 헌신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다. Check-It-Out에서의 경험은 내게 적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을 잊지않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 분은 성경말씀과 주위의 사람들, 또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방향으로 돕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 주셨다. 위클리프 캐나다의 동원가인 제시카 뎀스터가 Check-It-Out에 참석했었는데, ‘카페 위클리프’ 모임(나와 비슷하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모임이다.)을 통해 그녀와 더 친하게 되었다. 한인 동원가인 이규준 선교사님도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위클리프 사역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도와 주셨고 특히 나의 불확실함과 두서없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을성 있게 대해 주셨다.

지난 6월, G20 정상회담으로 인해 직장에서 이틀간의 휴가를 받았다. 야외로 나가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마음이 들떴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 주일 교회에서 G20가 열리는 그 주에 나이아가라에서 KOSTA 선교대회가 있음을 듣게 되었다. 매 년 일 때문에 그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올해 내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꼭 참석해야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게다가 무작위로 뽑힌 내 룸메이트는 위클리프 자원봉사자였고 첫 식사를 위클리프 홍현민 선교사님과 함께 하

**Last** April I attended the Check-IT-Out conference. It provided me with a new perspective on missionary work. At the time I was not sure of God’s call for me and hesitated to commit myself to anything. The experience at Check-IT-Out challenged me quite a bit, so I prayed and I remembered the moments and keep reminding myself of what it is that He wants for me. As I seek for God’s clear guidance, He spoke to me through the Bible, other people and circumstances.

God sent people from different directions to help me. Wycliffe Canada Toronto mobilizer, Jessica Dempster was at Check-IT-Out and I got to know her better at Café Wycliffe, which is a great way to meet people with a similar vision in life and share the stories and encouragement. The Korean ministries mobilizer, Gyujoon Lee provided me with insights to Wycliffe’s work in Canada and worldwide. He has been very patient through my uncertainties and random questions.

In June, due to the G20 summit, my work gave me 2 extra days of holiday. I got excited thinking that I could do some outdoor activities and wondered where I should go. That Sunday at my church, I heard about another mission convention called the Korean Student ALL Nations (KOSTA) in Niagara Falls which was the same week as G20. Every year, I missed the convention due to work, and this year, the circumstances were clear that I was meant to go. My randomly selected roommate was a Wycliffe Canada volunteer, and the first meal I had, I was joined by Wycliffe Mis-

게 되었다. 그 분은 내 삶의 방향에 대해 소중한 충고를 해주셨다. 그 다음 주 나는 카와타 호수에 있는 한 별장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는 상주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내 친구의 가족들이 여름동안 매주 여러 도시로부터 사역자들을 모셔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간 주일에 위클리프 캐나다 존 킹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분은 파푸아 뉴기니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내게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위클리프 캐나다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디서부터든지 우선 시작을 해야 했다. 그때 Race to 2025에 대해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행사에 어떻게 참여 시키실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다. 나는 야외에서 하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한다. 지난해 나는 단지 호기심으로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까지 자전거 일주를 했다. 올해도 재미삼아 킹스턴에서 토론토까지 자전거 일주를 했다. 정기적으로 캠핑도 가고 무척 즐긴다. 광야를 질주하거나 카누, 암벽등반, 산악 자전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자연속에서의 활동들은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건 분명했지만,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이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청년들은 이런 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두달 남짓 기도하며 사람들을 찾고 있을 때 제시카가 이끄는 카페 위클리프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혹시나 하며 인쇄물을 만들어 가져가 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내가 처음 소개를 받은 사람은 벤 프랭하우저였다. 내 기도 제목이 적힌 인쇄물을 보고 그는 자기가 지난 겨울 경기에 참여했으며 이번에도 참여하기위해 팀원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 바로 곁에 있던 로버드 울피그가 Race to 2025가 뭐냐며 관심을 갖고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결국 그도 우리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팀원은 3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팀원은 이규준 선교사님이 내가 다른 두 사람을 만나기 하루 전날 소개시켜준 한 레이첼이었다. 그녀는 약간의 관심을 보였었는데 2 주 후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sionary Joseph Hong, who gave me valuable advice on my life direction. The week after, I went to a cottage up in Kawartha Lakes where there is a church with no pastor in charge year around. My friend's family invites pastors from a different town every Sunday for the summer season. The Sunday I visited, the pastor was another Wycliffe Canada Missionary John King, who shared his stories from Papua New Guinea. People might think that this could be just coincidence, but for me there were enough signals that God wanted me to do some work with Wycliffe Canada.



I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I had to start from somewhere. That is when I heard about the Race to 2025. God knows me so well that he knew exactly how to get me involved right away. I love outdoor activities. I have biked from Toronto to Niagara Falls just for curiosity last year. I also have biked from Kingston to Toronto for fun this year. I go camping regularly and absolutely love it. When I watched the promo video with men and women running in the wilderness, canoeing, rock climbing, and mountain biking, and all these for the glory of God, my heart was pounding intensely.

I knew I was for sure I wanted to do this, but the race required having a team of four people. I trusted God to provide what I need and I started praying. People I knew who enjoy these kind of activities were not Christians and people at my church were not interested in outdoor stuff at all. After 2 months of praying and asking around, I was invited to a Café Wycliffe hosted by Jessica. I thought I would give it a try and printed some materials to hand out. The first person I was introduced to was Ben Frankhauser. When he saw my prayer request, he shared that he raced last winter and wanted to race again and was looking for a team to join. Right beside us, Robert Ulfig joined in the conversation being curious about the Race to 2025. He was interested in racing with us, and there, we had 3 people for our team. The last member, Rachel Han, was introduced to me by Gyujoon Lee the day before I met the other two. She showed some interests then, and 2 weeks later, she emailed saying that she wanted to join the

얘기하긴 했지만 그분이 팀원을 채워주시는 방법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Race to 2025: Congo 행사는 알버타주의 누르텍 부근에서 열렸다. 콩고에 갈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 곳의 성경번역 사역과 전쟁, 기아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이 경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보다는 경기 자체에 더 흥미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콩고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콩고 성경번역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

캘거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로버트는 '불의 전차' 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는 주인공 에릭 리들의 말로 시작했다.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 모든걸 맡긴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 첫 날은 오리엔티어링, 15km 산악자전거, 15km 카누, 그리고 몇몇 서바이벌과 번역하는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거친 일기 속에서의 경기 일정은 무척 힘들었다. 첫 체크 포인트까지 우리 팀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다. 그러다 내 자전거 체인이 오르막길의 밑자락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우리 팀은 마지막으로 처지게 되었다. 나는 창피했다. 나는 늘 내 자신이 활동적이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로 인해 우리 팀원 전원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교사역에 사용하려 하시는지 그분께 여쭙었다. 그 때 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롬 9:33)

race with us. Wow! I said I trust God, but I was truly awed at how he pulled the team together.

Race to 2025: Congo was held near Nordegg, AB. We did not have to go to Congo. Even though I have been praying about Bible translation work in Congo and healing for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 trauma of war and famine, I was more excited about the race itself than what I was racing for. I asked God to give me a sincere heart for the people of Congo and to show me the life of missionaries on the field. I wanted to see Jesus in the nature our Father created and the works He is doing through Bible translation ministries in Congo.

On the plane ride to Calgary, Robert was watching a movie called "Chariots of Fire". The movie starts with Eric Little saying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the end, from within... Jesus said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and if with all your heart you truly seek me you will surely find me, if you commit yourself to the love of Christ and that is how you run a straight race."

The first day of the race consisted of orienteering, 15km of mountain biking, 15km of canoeing and a few survival and translation challenges. I knew I would not give up, but it was tough racing through the rough weather. By the first checkpoint we were the second to last team. We were by far the last team after my bike chain broke at the bottom of a series of long up hills. I felt shame. I called myself active and athletic and there I was letting my team down and being the weakest link on the team. I questioned God why He would even use me for mission work in the field if I am so bad at the race. I did not realize then that in order to do His work, I have to let go of myself and have to trust Him and let him work through me. "...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Roman 9:33



우리는 그날 저녁 아주 늦게 야영장에 도착했고 우리 몸은 추위로 꽁꽁 얼어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다른 팀의 팀원들이 우리가 텐트를 치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곧 우리는 불을 쬐며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자신들도 피곤에 지친데다 내일 아침 경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 그들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We got to the campsite fairly late that evening and we were freezing cold. When we got to the site, other teams started helping us set up tents and settle down, while we warmed ourselves around the fire before we could move again. I had so much to learn from the people who were willing to serve others when they were also tired and had to race the next morning.



둘째 날에는 우리팀이 선두로 출발했다. 산악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산악 자전거 그리고 언어 도전을 마지막으로 경기를 마치게 되어 있었다. 숲을 헤치고 다녀야 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올라갈수록 산은 심하게 가파라지고 있었다. 다른 팀들이 우리를 지나쳐 갔고 이제 우리 넷은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큰 바위들을 헤치고 가야 하곤 했다. 나로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몇몇 지점에서 벤과 로버트는 나를 끌고 가기도 했으며 레이첼의 배낭을 대신 져주기도 했다. 오랜 시간의 등반 끝에 산정상에 도착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산들 위로 솟는 록키 산맥이 눈 앞에 펼쳐졌다. 이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었다. 우리가 서 있던 다른 한쪽으로는 1500m 낭떠러지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관을 한껏 즐기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경기 루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을 잃었던 것이다. 다음 체크 포인트까지 가는 것도, 경기를 마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겠다는 긴급무전을 치기로 했다. 그러나 무전을 막 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라디오가 꺼져 버렸다. 예상치 못한 통신 두절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지난 밤 라디오를 끄지 않고 잔 내 잘못이었다. 내 자신에게 질리고 화가 났으며 심지어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화가 났다.

Our team was the first team to start on the second day. Mountain orienteering, rock climbing, biking and the linguistic challenge were planned in order finish the race. I expected some bushwalking, but the mountain got steeper as we headed up higher. Other teams passed our team and the four of us kept heading up. As we climbed, we had to scramble over rocks which I totally was not prepared to do physically and mentally. At some points, Ben and Robert carried my and Rachel's backpacks for us. After long hours of climbing, we were at the top of the mountain. It was beautiful. There I could see the Rocky Mountains beyond the mountains in front of me, all created by our awesome God. On one side was a cliff straight down 1500m. Before we fully enjoyed the view and praised the Lord for what he allowed us to see, we realized that we got off track a long time ago. We had gotten lost and we would not be able to make it to the next checkpoint anytime soon nor finish the race. We made the decision and finally radioed that we were just heading back to the base camp where we started and all of a sudden our radio died. Unexpected communication isolation gave all of us sense of panic. It was my fault as I did not turn off the radio overnight. I got so angry at myself about not turning off the radio and being weary, and even was angry with God for letting me getting into that situation.

일단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다가 나는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카메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카메라는 지치고 약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이 산에 올라갔으며 이 경기를 해냈다는 증거였는데 말이다.

Once we decided to climb down, we thanked the Lord and prayed that He would show us the way. Then I lost my camera. It was the only thing I had left. Even though I was weak and slow, I had proof that I climbed up that high and went through the race. It really hurt me to let go of my pride and feel very discouraged on top of the steep slippery rocks. I would have broken down, if I was not scrambling down with a 12kg backpack on my back. When I got over that hill, all of a sudden I realized that God answered my prayer through my camera. It was only a camera that I lost. People in Congo lose their family, friends, village, and every-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 험하고 가파른 암벽의 꼭대기에서 나는 정말 실망하고 말았다. 만약 내가 12kg 의 내 배낭을 지고 미끄러지듯 암벽을 헤쳐나가는 일마저 못했더라면 나는 완전히 무너졌을 지도 모른다. 내가 언덕을 넘어 섰을 때 문득 하나님께서 내 카메라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 주셨음을 깨달았다. 내가 잃어 버린 것은 단지 카메라지만 콩고인들은 가족, 친구, 마

을, 그들의 전부를 잃었던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 경기에 자칭하여 참여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고통과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카메라를 사용해서서 내게 그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데릴 프리슨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나 또한 그러한 마음 갖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잃게 했으며 내가 굉장한 고생을 겪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그 산에서,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맞볼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평안해졌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예수 안에 있네/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고 찬양하고 있었다.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으며 가사 하나하나가 진정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산골짜기에 이르게 되었고 산길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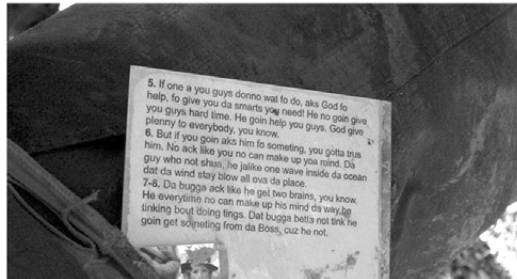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기꺼이 씻어 주고자 했던 팀원들과 함께 했던 이 놀라운 모험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고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다. 또한 내 친구들과 교회로부터의 중보기도와 후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실지 무척 기대가 되며 이 모든 경험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약 1:4, Hawaiian Pidgin Bible 하와이 피진영어 성경 -

thing. At least I signed up for this race, but people in Congo have to face suffering not choosing what they are getting into. I am sure it is not even comparable, but God used my camera (thankfully not any part of my body) to remember them. At the orientation, Derryl Friessen was in tears just talking about the people in Africa. What a heart to feel those people's pain and pray for them. I wanted that for myself and God let me have the taste of it on that mountain where I lost my pride and felt like I having a real hard time. God was with us. From that point, I felt comforted and started having fun. We sang along "Every step I take I take in you, you make me move, Jesus!" the praise wa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and we literally meant it. Eventually we were led to a ravine and we were able to safely follow the path all the way down to the trail.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your paths." Proverbs 3:6

I am so grateful that I got to experience this amazing adventure with the teammates who were willing to wash each other's feet just like Jesus did for His disciples. I got to know my God a bit better through the journey and learn about servant leadership through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Also I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intercessory prayers and support from my friends and church. I look forward to more ways God will prepare me for His work in Bible translation and I would so do this again and again. 🌿

"Wen you guys hang in dea all da way, dat goin make you guys grow up and come mo strong inside, jalike you suppose to, so dat you guys no need nothing moa."  
James 1:4 Da Jesus Book





한 기 영

**성**경을 깊이 읽게되면서 어느 순간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딸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코스타 때 보게 된 위클리프 부스에서 윤기태 선교사님과 NextGen 사역자인 Jessica Dempster를 만났고, 지난 2008년 지킴 페스티벌때 성경번역선교회를 소개하는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이후부터 매 주일 윤기태 선교사님이 보내주시는 주간기도제목을 받으면서 성경번역선교사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받게된 기도제목 이메일을 통해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윤선교사님께 감사의 메일 드린 게 계기가 되어서, 위클리프를 통해 선교에 대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규준 선교사님과 만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2002년 10월 중학교 3학년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와서, Health Sciences를 전공하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구요. 그 기간 동안 여러 선교의 기회를 접해보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산간벽지 선교 다녀왔고, 이규준 선교사님과 만나서 하림 언니 알게 되고 지난 9월에 Race to 2025에 참여했습니다. Ad-

vanced course여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술한 어려움과 난코스를 헤쳐나가야 했지만 많은 걸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여러 부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콩코여러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말로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 있어서, 성경번역선교의 중요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르시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그분들의 말(heart language)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신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게 당연하지요.

이제 오는 12월부터 파푸아뉴기니 우까롭과 센터에서 성경번역선교와 의료선교에 대해 체험해볼 예정입니다. 다녀와서 또래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길 나눌 수 있길 바래요. 앞으로 하림 언니가 한인사무국과 함께 만들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웹사이트(wordlovers.ca)를 통해 주님안의 존귀한 sister, brother과 친해지고 싶어요!!~ 같이 기도해주세요!!

남현진 / 류가흔 부부 기도제목 (성경번역선교훈련@CanIL)



- 아내가 계속 시달리고 있는 심한 편두통이 나을 수 있도록 또한 새로 출석하는 한인교회에 잘 적응하고 가능하면 영어 / 중국어(광둥어) 예배를 함께 드릴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 늘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여 결혼생활과 학업 등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 격려하며 많은 공부의 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12월에 이사 예정인데 예비해주신 좋은 곳 찾도록
- 계속 훈련 받기 위해 기도와 재정 후원 동역교회와 개인 주시도록



## 안녕하세요. 남현진 류가흔입니다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TESOL 을 전공하고 영어학원 강사를 하다 2006년 초 영어연수 때문에 토론토에 와 제 아내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수학을 전공했고, 토론토에서 직장생활 중이었습니다. 2008년 아내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중략)…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언어학 공부를 할 계획으로 다시 토론토로 돌아 왔고, 올 2010년 초에 이규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 언어학도 공부하면서 성경 번역 훈련을 할 수 있는 곳 CanIL (Canada Institute of Linguistics)에 대해 듣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공부하면서 정착하고 싶었고, 밴쿠버로의 이사가 별로 내키지 않아 CanIL 로 가는 것을 선택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과 생각들로 가득찬 채 연약한 믿음으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참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클리프 선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CanIL을 통해 언어학을 공부하고 성경 번역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적도 없고 성경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 된 후 말씀이 가져다 준 축복과 삶의 변화,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경 번역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며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었고, 10년 혹은 20년 뒤라고 말하는 것은 No와도 같은 답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맞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CanIL에서 여름 학기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대학원에서 배우는 언어학과는 다르게 모든 수업이 실용적이고 성경 번역과 선교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7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절반 정도가 미국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20대 초반 학생들이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는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보통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공부한다는 목적을 항상 되새길 수 있습니다.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야외활동, 스포츠, 언어학 세미나, 채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의 언어학과 관련된 생생한 현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습니다.

여름학기 이후 가을부터 언어학 학위 프로그램을 같은 곳에서 수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공부를 마친 후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 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임했었을 때,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차세대 동원사역자 Jessica Dempster와 함께@동부사무실)

# “나의 완고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찰스 JJO 훈련”



2010 JJO 체험기 (조명균 Edward Cho / 토론토영락교회 Youth Group)

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s)에서 주관한 Jungle Jump Off 여행은 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고 다른 참가자에게도 똑 같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말씀의 영양식으로 내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셨다.

우리는 선교지를 재현하는 전기가 없는 외진 곳일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한 주를 보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모기와 싸워야 했고,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고, 냄새 풀풀나는 야외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결국, 잘 참았다가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JAARS 건물에 갈 때를 틈타 우리 본연의 업무를 봐야 했다. 매우 거친 환경과 매일의 활동을 이겨내도록 간혹 여가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나는 수영을 즐기지 않지만 (못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갔었고, 비행기 타기를 했고, 여러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네 선교사님의 가정에 저녁 초대를 받았었고, ‘일일선교여행’이라는 5시간의 선교 체험에도 참가했다.

The trip to Jungle Jump Off, hosted by 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s), was an ineffable experience for me and surely for the other participants as well. Albeit the trip struck me with an immense load of physical burdens, it definitely enriched my soul with the valuable nutrients served by God’s Word.

Not only did we have to spend a week in a simulated remote village where there was no electricity, but we were also required to sleep in primitive houses, battle mosquitoes, seek places for a mild breeze amid the extreme heat and humidity, and utilise foul smelling outhouses. Consequently, most of us patiently waited to do our “business” at the JAARS centre, where there were clean flush toilets. To neutralize the severity of the harsh environment and daily activities, we were given chances to enjoy ourselves. We went to the swimming pool, which I could not really enjoy because I cannot swim; went on a plane ride; visited museums where we were informed about the history of many languages; were invited to four different missionaries’ houses for dinner; and took part in a five-hour simulated mission experience called The Journey.

Personally, my favourite activity among all was the visit to missionaries’ houses for dinner. My group went to visit Ben and Diane Clary, who have spent years in Papua New Guinea and Pakistan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 있었던 활동은 선교사 가정의 저녁 초대였다. 수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와 파키스탄에서 사역했던 벤 과 다이앤 클러리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맛있는 저녁을 대접 받았고, 그분들의 사역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두 부부와 함께한 저녁 시간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특히 내가 이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정글 체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일일선교여행이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실제로 사역지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여러 단계를 두루 거쳤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기에 아주 재미있었다. 그러나, 실제 단계는 대단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된 하루가 끝난 뒤에는 모두 지쳤었지만, 우리는 각 그룹별로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교제 시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이후에 30분 정도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재미난 괴담 이야기 하거나, 고리 걸기 게임, 그리고 샤워 등을 할 수 있었다.

솔직히 이번 정글체험 훈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계기로 나의 완고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열정과 아직도 성경 없는 분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의 뒤를 잇는 세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다.

servng the Lord. We were served a very delectable supper, and they shared with us their experience as missionaries. I was flabbergasted by how perilous missionaries' lives are and how missionaries devote their lives to offer salvation to the unreached by spreading God's Word. I found this dinner together with Ben and Diane especially helpful because it got me wondering if I were bold and dedicated enough to do what they have d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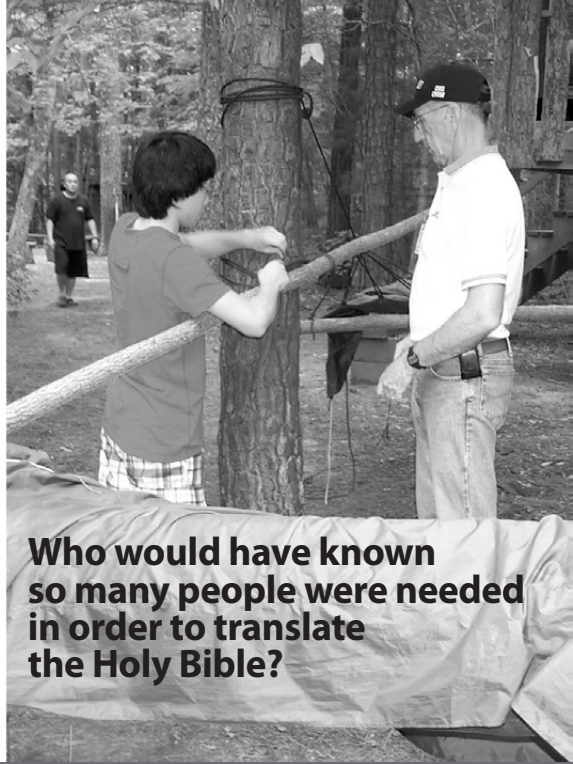
Another highlight of the expedition was The Journey. We experienced the steps that missionaries take before they actually put their feet overseas. I could enjoy the activities because they were simulated, but I knew that actually experiencing them would be an extremely long, complex process. At the end of each day, we were all enervated from the strenuous day; nevertheless, we gathered in groups to have a time of reflection. This fellowship we had sharing opinions helped tighten the bond linking us. After the time of reflection, we had about thirty minutes of free time during which we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telling scary stories, playing the ring game, and washing ourselves.

To be honest, before this excursion, I had had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God because I believed only in things that have solid supporting facts; however, after this trip, I saw my stubbornness shattered into pieces, and this experience has kindled my desire to live to glorify God and to be the future generation of missionaries that serve God translating the Bible into people's heart language. ♻️





성경번역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누가 알았겠어요?



Who would have known  
so many people were needed  
in order to translate  
the Holy Bible?



방지윤 / 토론토 영락교회 청소년부 Jee Yoon Bang / Youth Group of Toronto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먼**저 우리 영락교회 청소년들에게 JAARS에서 운영하는 정글점프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기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언급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20명의 젊은 학생들과 8월15일 일요일에 놀스캐롤라이나에 있는 Waxhaw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참가한 우리들은 각기 자라난 배경에 따라 다른 신앙수준에 있었습니다. 자라난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믿음에 있어 다르게 양육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으며, 또 어떤 학생들은 세례도 받았고, 신앙의 확신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예수를 믿은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믿음 수준의 차이는 이번 여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퍼(champa)라고 불리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인 통나무집에서 쉬어지었고, 컴퓨터나 tv, 핸드폰 같은 것들의 방해받지 않고 서로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순수한 인간애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재밌게 지내는 것 외에 선교사님들에 의해 진행된 세미나와 경험담에서 우리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F**irst off, I would like to start by mentioning how blessed I feel that our group from Young Nak Church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Jungle Jump Off (JJO) program run by JAARS.

On Sunday, 15th of August, twenty young students all went on a journey, physically to Waxhaw, North Carolina, and in faith, standing at different levels because of our different upbringings. What I mean by different upbringings is that we were all brought up differently in the faith. Some students, being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were lucky enough to have been Christians all their lives, some have been baptized, maybe even confirmed nowadays, and some have relatively met the Christ relatively later on, which I would put myself. However, these differences did not matter in this journey we went on together. As we mingled in our very primitive "Chumpas", which were cabins made only of wood and had no true roof, we experienced our God-given nature and genuine humanity in a group without any distractions such as computer, TV, or cell phone. Besides having fun and making new friends, seminars and stories told by missionaries impacted us greatly.

JAARS는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의 약어로 전세계의 성경번역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JAARS의 기능에 대해 배울때 우리 모두는 얼마나 경탄했는지! 성경 번역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단지 번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정비사, 조종사, 학교선생님들, 목수들 그리고 그외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가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지역과 부족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전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을까? 나는 지금 믿음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는 걸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는 건가? 그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만의 삶을 위해, 여타 전형적인 다른 십대 소녀들처럼 내자신의 외모, 성적, 친구 같은 것만 걱정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지내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JAARS is an acronym of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and this service group had been supporting many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arning about how JAARS functions awed us all. Who would have known so many people were needed in order to translate the Holy Bible? They needed not only translators but also mechanics, pilots, school teachers, carpenters, and so many more to work together in Bible translation.

Translation was not just one man's job. Furthermore, the work was sometimes dangerous, for people were often going into culturally and religiously different places and tribes. Hearing all this, I thought to myself, "How did these people devote their whole lives to God's work? Where am I, in terms of faith? What kind of relationship am I in with God? Do I even have one? Will God ever use me, as he did them?" Then, I realized that I have been so busy living my own life, worrying about my appearance, grades, friends, and anything that a typical teenage girl would be concerned about. This realization made me think about my life again and look back on to my past relationship with God.



세상에는 영향력있고 힘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나, 돈이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중 몇몇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그분들의 간증을 들은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전 제 믿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There are so many influential and powerful people in the world. They may have fame, money, or authority. However, real influential people are those who send out God's Word and take part in God's work. We were lucky enough to meet a few of them. Hearing their testimonies was indeed a blessing from God. By the end of the trip, I had learned about my faith.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재능과 다른 교육을 받은 개개인이었지만 여행이 끝날 때는 공통분모를 지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고, 언젠가 우리 그분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JAARS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함께했던 목사님, JJO에서 프로그램 코디해주신 분들과, 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Then, as I looked around the group of people I was surrounded with, I thought that maybe we were chosen by God for a reason. Before the trip, we were just individuals with different talents and upbringings, but by the end of the trip, we had one thing in common. God had planted a seed of hope in all of us, that one day we will be used by him as well.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parents who sent us to JAARS, pastors who came with us, the program coordinators at JJO, and God for giving us this precious opportunity. ♡



# GLOCAL Conference

2010년 5월 31일, 캘거리에서  
돈 해크먼, 위클리프 캐나다 대표

On May 31, 2010, Calgary, AB  
Don Heckman, President of WBTC

## 제7회 글로컬 컨퍼런스 환영사 Welcome to the Korean GLocal Conference

**위**클리프 캐나다를 대표해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글로컬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동료들로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이 행사가 개최된 지역마다 위클리프 한인 사회에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애써준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의 리더십과 함께 동역해준 지역교회들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글로컬 컨퍼런스는 제가 위클리프 캐나다의 대표가 된 이후로 가장 기쁘고 놀랄만한 행사중에 하나입니다. 위클리프 캐나다와 동역하는 한인 여러분과 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랜 위클리프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섬겨왔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가 한인들과 가까이 함께 사역하는 저의 첫번째 경험이며, 제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경험입니다. 한인들과 같이 모일 때마다 대접받았던 맛있는 한국 음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말씀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같은 영적이고 개인적이며 탁월한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은 음식은 아니지만 세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소화시켜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사도행전 28장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

**On** behalf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it is an honour to welcome you to the GLocal Conference, hosted for the first time in Canada.

I have heard from my colleagues of the importance of this event each year for the Korean members of the Wycliffe community in every country where it has been held. It is a tribute to the leadership of Korean Ministries of Wycliffe Canada and their partnership with churches that we could even think of hosting this event this year.

One of my most enjoyable experiences since coming into the leadership of Wycliffe Canada has been to get to know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ssociated with Wycliffe Canada. Throughout my ministry with Wycliffe over the years, I served in Canada, in the Americas, and in Africa, but not in Asia. So this is my first experience to work closely with Koreans, and it is genuinely a positive, rewarding experience for me. And I'm not speaking only about the delicious food that is served at every occasion you get together, but I am speaking of the spiritual, personal and leadership qualities I observe: The passion for the Scriptures, the passion for missions, the passion for prayer. These qualities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food for the Global Church to receive, take in, and digest.

Yesterday in our church we heard the reading of Acts 28 where Paul was speaking to the Jewish leaders in Rome. He ex-

옴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행28:28) 이 약속은 아직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이방인, 비유대인들이며 이 세계의 토착민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소외된 언어 그룹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현재 위클리프 캐나다의 멤버중 약 2~3% 정도가 한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언제 그 비율이 5%, 10%, 그리고 15%가 될까 하고 말합니다. 3년, 5년 또는 8년안에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의 성경번역 사역을 위한 한인교회들의 후원 증대, 그리고 지원자와 위클리프 멤버들의 급증, 세계적인 성경번역 운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과 도전은 여러분과 같이 저희 위클리프 지도부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임들을 즐기십시오. 같이 친교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다른 지역에서 방문 오셨다면 켈거리와 인근지역들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한 두 번 정도는 외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여러분이 위클리프캐나다 본부 방문시에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아, 참, 그리고 그 날 준비될 한국음식도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

plains the gospel and concludes with these words: “So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salvation from God has also been offered to the Gentiles, and they will accept it.” That promise still holds. We are among those Gentiles, non-Jews, who have accepted the salvation of God, and indigenous peoples of the world are also among them. As the message of salvation continues to go out to the most marginalized language groups of the world, they will accept it. Isn't it great to be part of that mission?

2-3% of Wycliffe Canada membership is now made up people of Korean origin. I tell my staff, I wonder when that will be 5%, then 10%, then 15%? Will we hit these markers in 3 years, 5 years, and 8 years? You are preparing for a growing support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worldwide, and for a significant increase in applicants and members to Wycliffe and the world-wide Bible translation movement. The question and challenge for us is “Are we in the administration of Wycliffe organizations as prepared as you are?”

Enjoy your meetings. Enjoy your fellowship together. Enjoy our city and surrounding regions, if you come from elsewhere—as I understand you will have an outing or two. And we look forward to Wednesday, when we can host you at the Wycliffe office and others of our staff can meet you. Oh, yes, and enjoy Korean food together. ♡



최창선 목사



정민영 선교사



김신일 목사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뜻깊고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유치해주신 켈거리한인장로교회와 위클리프캐나다 본부의 전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의미를 두고 참석해주신 여러 교회와 참가자들, 늘 기도를 아껴주시지 않는 기도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타와, 토론토, 켈거리, 에드먼튼, 밴쿠버 등 5개 지역에서 12개 교회, 미국 올랜도 1개교회에서 2명 등 모두 3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올바른 선교의 의미, 교회와 선교회와의 협력, 특히 평신도 선교와 1.5세 지향 사역 등 중요한 제목들을 다루고 앞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두었다는 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가자들과 강사로 섬겨주신 정민영선교사님(국제위클리프), 김신일 목사님(달라스한인교회), 위클리프 대표 돈 해크먼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리고, 큰 도움을 주신 켈거리한인장로교회 담임 최창선 목사님과 켈거리한인장로교회의 위클리프 자원봉사 팀께 감사드립니다.



이 길 수 간사



**이** 민생활을 하면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다. 글로벌도 그렇다. 훌륭한 강사님들이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고 게다가 먹여주고 채워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고달픈 일상에서 탈출하여 마음껏 호사를 누리보리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글로벌에 참석하면서 내가 느낀 첫 번째는 한국인으로 북미에서 선교를 조금이라도 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원해서 이민을 왔더라도 누구에게나 이민에 대한 회의가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인가. 하는 생각을 곧잘 한다. 그러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다. 본토 아버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았다.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이 무슨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된다. 나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하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은 황송한 일이다. 그게 바로 축복이다. 눈높이를 세상에 맞추지 말고 영적으로 조절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두 번째 나의 감상은 나의 안일했던 선교관에 대한 것이다. 위클리프를 알게 되면서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제넘게 성경번역에 연연하다 보니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성경번역만 끝나면 선교가 끝난 줄로 생각했던 거다.

게다가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막강한 숫자와 한국교회들의 가시적인 파워 때문에 선교를 완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어이없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에 참석한 다음, 성경번역은 선교의 첫 시작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수년 내에 끝날 줄 알았던 선교가 아직 제대로 된 시작도 아니었다는 것을 안 순간, 맥이 빠지고 숨이 막혔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었다. 나의 무지함과 안일함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긴 여행을 떠나기 전 기본적인 정비와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침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글로벌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새 생각과 마음, 그것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글로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 다양한 사역의 기회... IT사역 / Web사역

http://glocal.wordlovers.ca

이 상 협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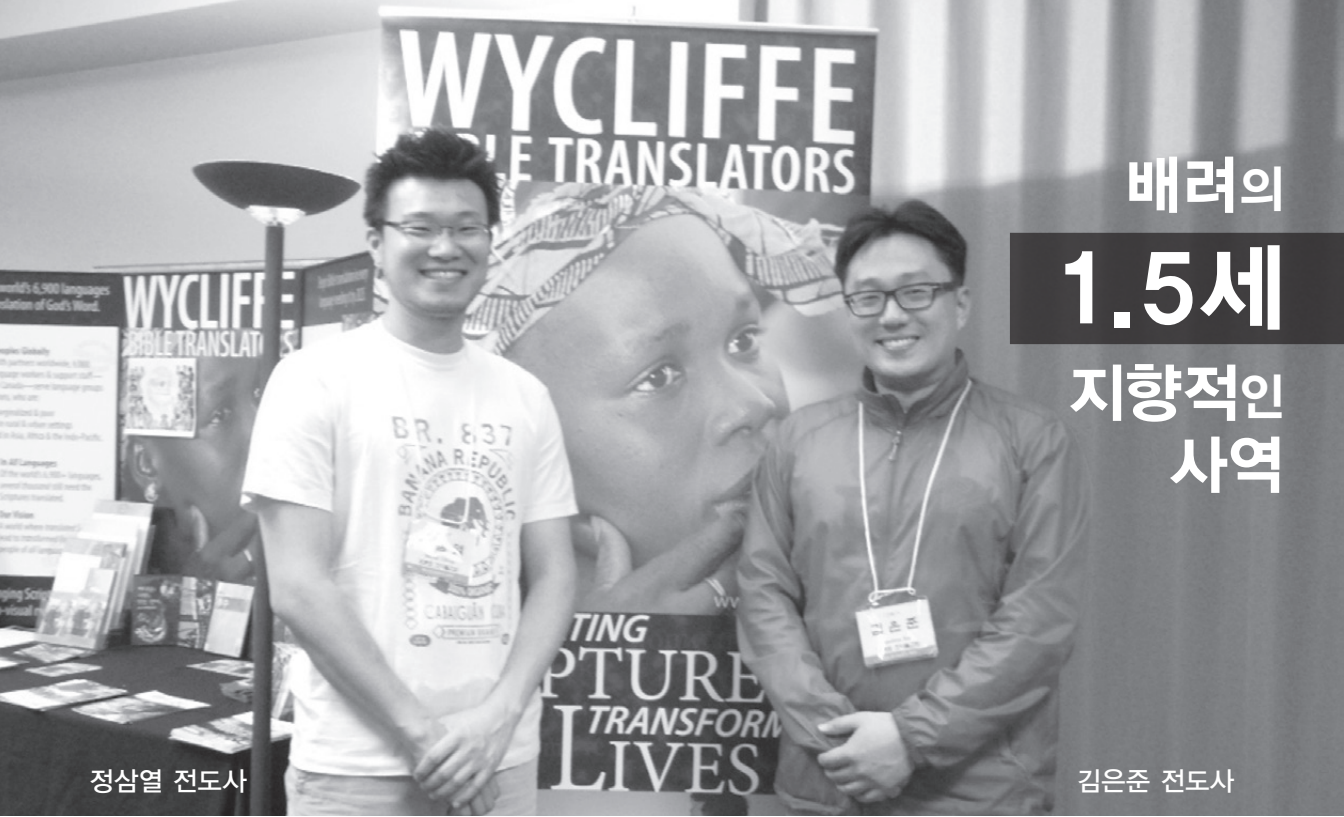
**위**클리프 자원 봉사를 하던 중 내가 사는 캘거리에서 글로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글로벌이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는 모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참석하기로 했다. 요즘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은 만큼 선교 단체도 많고 대개 교회와 많은 연관을 맺고 협력하고 있지만 각자가 초점이 다른 만큼 차이점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 중 특히 감명을 받은 부분은 달라스 김신일 목사님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에서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을 '변두리' 라는 말로 풀은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안에 있으며, 이민자를 '변두리' 에 두신 것을 이해하는데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상황임을 깨달았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변두리' 문화에서 자라서 상황화를 겪은 한인들 그중에서 특히 1.5세대들은 선교지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라는 것도 알았다.

1.5세 사역에 대해 토론하면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이민의 역사가 더 짧은 캐나다 한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들이 전부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다. 단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도 오히려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글로벌에서 나는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glocal.wordlovers.ca>) 도 만들게 되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 토론, 자료 공유, 글로벌에 관한 소식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지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디어와 이름을 등록하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위클리프 자원봉사를 하면서 각 선교지역의 IT수요를 감당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IT 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보안, 데이터베이스, 교육 등등 많은 부분에서 간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편리함이 꼭 필요한 시대에 많은 기술의 변화를 선교의 현장에서 이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우리들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좀더 나은 시스템이 되고 좀더 발전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삼열 전도사

김은준 전도사

### 토론토조이플교회 김은준 전도사

2010년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의 큰 주제가 몇 있었지만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1.5세 지향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후자는 이민목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좋은 개념임에 틀림없다.

1.5세 지향적인 사역이라 함은, 소위 ‘Silent Exodus’라 불리는 1세적인 마인드를 가진 개인(혹은 집단)과 2세적인 마인드를 가진 개인(혹은 집단)간의 벌어지는 갈등구조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융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사역 방법을 말한다. 이 갈등 구조는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영어가 어려운 이민1세대들과 영어로만 소통하는 2세대들 사이에 이질감/괴리감이 문제다. 이민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1세대들은 2세대들이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라난 2세대들에게는 이 요구가 정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른은 일단 공경하고 봐야 한다는 한국적인 정서 혹은 문화 또한 잘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견디지 못한 2세대들은 1세를 떠나 독립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만든다. 각 교회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와 같은 혹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줄이고자 소위 KM(Korean Ministry)과 EM(English Ministry)로 나누어 섬기게 된다. 이들은 같은 교회 이름 아래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독립된 사역 형태를 취한다. 잘 운영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두 사역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또는 하나됨(unity)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역시 설립5주년 된 교회로서,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내 담임목사님을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

성되어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KM/EM으로 구분하는 말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모든 교육부서를 연령별로 편성했고, 모든 부서 사역자들과 구성원들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교육부서의 이름은 유치부는 Jump, 주일학교는 Vision Tree, 학생부는 J-One, 청년부는 Chayah 등 전 부서 명칭을 영어로 바꾸고, 커리큘럼이 청년부까지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통역기를 마련하여 장년예배와 청년예배 때마다 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사회에서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영어가 좀 더 편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물론 그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두 Ministry 간의 갈등과 유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즉 서로를 ‘배려’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한 것처럼, 각 교회마다 서로 처해 있는 다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 원리를 ‘배려’ 라는 것은 키워드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령의 도우심, 선을 이루심은 기본이다. 그 위에 믿는 성도들간의 깊은 ‘배려’ 가 바로 현 이민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좋은 출구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다리역할의 특징을 갖고 있는, 1.5세 지향적인 사람이 가질 소양, 혹은 사역의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위 Korean-Canadian 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Canadian 만 있는 곳 또는 Korean 만 있는 곳에서는 없는 갈등의 구조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이미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첨예한 대립이 되거나, 아니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복속/흡수되어 버리는 결과를 빚는다. 그러나 1.5세 지향적인 사역이란 양자간의 적절한 맛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만 아니면 한국어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로 배려해야 한다. 1세와 2세가 자라온 신앙의 환경이 전혀 다른데, 1세가 2세에게 자기 것만 강요하고, 2세도 1세에게 자기 것만 고집해선 안 된다. 1세는 2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2세들은 1세들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배려와 겸손이 우리네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글로컬 컨퍼런스와 같은 모임의 장에서 함께 이야기 하며 현 세대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길 소원한다. 이민교회라는 특수성이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여 좀 더 나은 다음 발걸음을 내 디딘다면, 이민교회뿐 아니라 캐나다 또한 세계 교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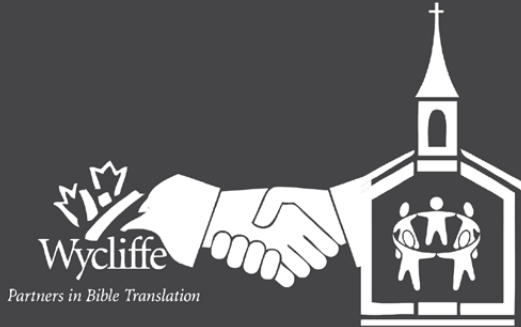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



## 기획시리즈: 시너지 창출 선교 4

하늘의 씨앗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회와 선교회가 협력하여 선교 시너지를 만들자는 기획 글을 씁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교회를 모르는 선교(회)는 선교를 모르는 교회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An unchurchly mission is just as much a monstrosity as an unmissionary church).” 교회의 참 정체성을 찾아주고 선교현장의 효과적인 사역을 증진시키는 선교회의 순 기능과, 각양 재원을 갖고 기본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에 필요한 일꾼을 키워내고 동참하는 교회의 순 기능이 함께 어울려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 섹션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힘을 얻는 선교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의 사역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교회와 교회와의 긍정적인 동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타와한인교회의 강석제 목사의 고견을 실으며, 위클리프와의 동역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꾸는 선교의 꿈

강 석 제 목사 (오타와 한인교회)

### 오해 : 선교 = 그들만의 사명

제가 처음 선교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고, 선교사를 가까이에서 대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셨던 손증철 목사님이 바로 그 분이셨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상가를 빌려 쓰는 어려운 형편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어려워 담임목사님을 파송하면서도 선교후원을 하지 못해 손증철 목사님은 영락교회의 파송선교사가 되어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교회에게 선교란 선교사로 떠난 목사님의 ‘그만의 선교’에 불과했습니다.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총회 선교사로서도 잘 알려지신 분이지만, 손증철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는 파송과 함께 단절되었습니다. 재정적 자립과 수적 부흥이라는 목표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때는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80년대와 90년대 초의 한국 기독교의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시에는 온갖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서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많은 학생 클럽들의 이름이 “...연구회”나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선교, 도시빈민선교, 농촌선교 등을 주목적으로 삼았던 분들은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의 선교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선교 단체들과 해외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다양한 선교단체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이들은 사회참여보다는 개인 영성과 개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보적 입장

에 속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괴리감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진보적 그룹과 보수적 그룹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진보적 선교 개념을 너무 위험한 것으로, 보수적 선교단체도 '교회의 인재를 썩썩 빼먹는' 단체로 오해했었습니다.

### 이해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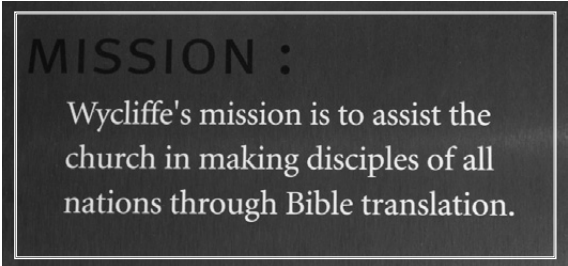
선교사를 통해 교회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제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내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분이 권성찬 선교사님인데, 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였으며 한국 GBT라는 선교단체(한국 Wycliffe)의 전 대표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권성찬 선교사님은 장로회신학대학원 2년 선배이셨고, 제 첫 부임지의 전임자였다는 연결점으로 인해 제가 자연스럽게 선교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움은 한국 GBT(한국 위클리프)에서 주관했던 위클리프 선교 캠프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신 것입니다. 전체 일정이 아닌 하루 오후 프로그램에만 참여했지만, 저로서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들은 강의 내용은 성경번역에 있어서의 기초적 원리, 선교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상대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Perspectives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열매는 이제 선교가 더 이상 '선교사만의 선교' 혹은 '선택 받은 그들만의 선교'가 아닌 '나의 선교', '교회의 선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성찬 선교사님의 두 번째 도움은 제가 섬겼던 창동 영광교회(권성찬 선교사님의 모교회이며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에서 최초로 해외단기선교팀을 훈련시키고 직접 인솔한 일입니다. 그때가 1996년의 일입니다. 제가 그 팀의 인솔 교역자였는데, 제 첫 번째 해외단기선교 경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매우 뜻 깊은 경험

이었습니다. 창동 영광교회가 자신의 교회에서 자란 전도사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고, 파송받은 선교사는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바쁘지만 교회를 도와 선교팀을 구성하고 훈련시켰으며,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리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훌륭한 인재를 아낌 없이 해외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와 그가 속한 선교단체는 다시 교회를 도와 교회의 선교 역량을 키우는데 협조하고, 교회를 자신의 재정후원 기관으로만 여기지 않으며 전교인으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도록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와 교회 또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가지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참여적이며 상호소통의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사역을 확장하게 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랜드 미국위클리프본부에 있는 사명 선언문 사진)

### 협력: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

2006년에 제가 미국 Orlando에 있는 미국 Wycliffe를 방문했을 때, 이런 문구가 현관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Wycliffe's mission is to assist the church in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through Bible translation." 놀랍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 건물도 아니고, 노회 사무실도 아닌데, 선교단체가 교회와 자신들의 비전을 공유하며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는 캐나다 위클리프의 한인 동원사역팀을 통해 이러한 비전이 주는 유익함을 얻음에 감사드립니다. 웃감은 씨줄과 날줄로 하나하나 짜여 갑니다. 제가 오타와에 온 이후에 협력하고 동역한 경험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걸음선교 :** 이규준 선교사님께서 무려 네 번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오타와한인교회)에 방문하셔서 첫걸음 선교 행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선교의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수요일 참석이 40명을 넘지 않았지만, 이 행사 중에는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얻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1) 선교사님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해외선교부 집사님들께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2) 교인들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으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와 흥미로운 활동으로 재미있게 선교를 배웠습니다. 3) 캐나다 이민 교회로서 교회와 개인이 가진 역량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4) 행사 이후에 몇몇 분이 다양한 선교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결심(?)을 얻었습니다. 이 모임 중에 있었던 일화 하나: 첫걸음선교의 마지막 시간은 자신의 선교지를 상상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10년 동안 원주민 선교를 인도하셨던 장로님의 비행기가 북미 땅에, 그리고 수년간 연변과기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셨던 권사님의 비행기가 중국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놀랍지 않습니까?

**글로벌 컨퍼런스 :** 저는 집사님 한 분과 지난 캘거리에서의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와 같은 세미나는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함께 하며 같은 비전을 품어나가는 과정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동행하신 집사님께도 다른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주관하신 위클리프 한인사무국이 말씀하시는 주최의 의도가 “북미 한인교회가 세계적인 관점을 갖는 지역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만, 그 중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위클리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과 광범위한 network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Christy Edwards는 선교를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다. 토론토처럼 한인교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초창기사로 모시고 오직 어린이를 위한 사역의 가능성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교회의 올바른 선교정책 수립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배웠는데, 이제 선교의 기초를 다시 다져가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 중 하나였습니다.

**JAARS 방문 및 협력 :** 평신도선교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말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는 교회가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오타와한인교회)는 전문인들이 많고 이미 자신의 분야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단기선교와 같은 행사로서의 선교, 선교집회를 통한 대규모 동원 보다는 각 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기적인 선교지역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DNA에 맞는 장기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기에 한 지역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선교사자녀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전문인 자문 사역, 학생 사역 등 사역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저희 목적에 잘 부합되는 선교 교육/체험 기관이 JAARS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론토영락교회가 이곳을 수 차례 방문하였는데, 저희 교회도 곧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지 않던 전 세계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또 다른 선교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글을 맺으며.

1마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2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마력으로는 23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협력(partnership)사역은 저희 교회가 세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기선교지를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 사역이 협력의 가치에 의해 수립되고 평가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간의 협력, 오타와에 생성된 타민족 공동체와의 협력, 지역의 대학과의 협력, 그리고 타민족 교회와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느리지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두 마리의 산양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한 마리가 다른 산양의 눈에 들어간 티끌을 풀어내 주기 위해서이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은 협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서로 친구삼고 함께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

# 기도제목 캐나다 한인 선교사

## 강창석 / 강사라 (캐나다 동원부/한인동원)

- 한인동원 팀웍이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한인 1세와 1.5세 동원에 더욱 기여하도록
- 신설되는 동원부서에 동원의 비전을 갖춘 지도자와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동원사역 전반에 큰 활력을 부여 주시도록
- 현재 자봉과 선교사허입 절차를 밟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절차를 잘 마치도록; P/Q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번역선교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조만간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 손자들 (선우, 진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되도록

## 김영수 / 이미자 (어진/하은/조엘) (캐나다 훈련부/교육훈련중)

- 지난 한해의 학업을 은혜로 마치게 해 주심에 감사
-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전인적 훈련을 위한 교육연구와 정신건강상담학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많은 교회,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 코카서스에서 진행되는 우디성경번역이 은혜가운데 계속 진행되도록
- 가족모두가 하나님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 박요섭 / 조선향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 성경번역)

- 현재 현지적응훈련 중 마지막 단계인 마을 생활을 건강한 가운데 잘 마치도록
- 11월 말 훈련이 끝나고 우까룸파 본부에 돌아와 정착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사역의 내용과 사역지를 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보도록
- 후원/동역하시는 교회와 개인들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도록

## L 선교사 (아시아 보안지역/성경번역)

- 매 3개월 마다 홍콩에서 비자를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여행중 안전 위하여
- 쭈안어를 배우는데 바로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욱 뿌리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 윤기태 / 양희숙 (캐나다 인사부,동원부/인사행정, 한인동원)

- 사위의 캐나다 방문과 아내의 담석제거 수술 잘 된 것 감사
- 확장되는 동원사역팀의 다양한 사역과 그에 따른 책임 잘 감당하도록
- 교회를 섬기는 사역마다 좋은 결실이 있도록
- 허입수속중인 가정들이 헌신의 처음 결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 더 많은 한인 헌신자들로 인사부 사역에 힘을 얻도록

## 이규준 / 한진숙 (광표/준표) (캐나다 동원부/ 한인동원)

- 지속적으로 관심자들을 보내주시고 한인사무국과 위클리프 캐나다 전체가 협력해서 일해가도록 하심에 감사
- 가을에 있게 될 선교훈련 행사와 여러 강의를 통해 성경번역선교의 비전을 잘 나누도록
- 한인사역의 팀워크활성화와 중국인 동원사역을 돕는 일 등을 통해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 장래 사역과 자기 계발을 위해 계획 중인 학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 최금택 / 류금주(찬미, 기욱) (파푸아뉴기니/ 항공부 부책임자, 초등학교 교사)

- 건강하게 예정대로 사역지에 도착한 것 감사
- 현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역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 그 땅의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중보 할 수 있도록

## 홍 마르다 / 알버트 F. (이삭, 모세) (아프리카/성경번역, 컴퓨터)

- 번역 작업의 진보(7언어, 신약초벌번역 완료)가 있게 하심을 감사
- 지속적으로 번역과 점검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 인터넷에 올린 번역된 말씀들을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기를
-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홍현민 / 귀주 (지수, 은수) (위클리프 국제/ 아시안 디아스포라 동원)

- 이동(한국, 동남아)과 정착 과정 그리고 계속되는 디아스포라 사역에 은혜 주심 감사
- 아시안 디아스포라 사역 전략회의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후속사역으로 미국교회들과 위클리프 인도네시아 동역 코드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
- 북미에서의 글로벌 컨퍼런스 및 선교적 교회 세션 워크샵 잘 진행되도록
- 선교교수 사역 기회에 대해 하나님의 뜻 이뤄지도록, 큰 딸 지수의 대학원진학에 은혜 주시길

# TRANSLATING Scriptures Lives TRANFORMING

## Upcoming Events

위클리프 기도의 한나절(@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등, 11월 10일) Wycliffe Day of Prayer :

전 세계적으로 11월 11일을 기도의 날로 삼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하루 당겨 11월 10일에 각 도시 별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위클리프 오리엔테이션 (@토론토, 11월 13, 20일) Orientation :

위클리프의 성경번역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세계에서 이뤄지는 성경번역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언제나 저희 한인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기 비전 여행 Vision Trip :

오는 12월 초에서 1월 말까지는 성경번역선교와 의료사역에 관심 있는 한기영 자매가 파푸아 뉴기니 우까룸파 본부에 머물면서 선교 체험을 하며, 장차 사역의 비전을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전 여행은 내년 여름(6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약 6개월 전(2011년 1월)까지 저희 한인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후원안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로부터 선교사와 재정 동역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헌금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클리프는 자선단체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모든 사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정 동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교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캘거리본부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유민주 간사 403.399.3584  
Minju\_Yoo@Wycliffe.ca

알버타사무실 KM BC Office

#### 한인사무국 (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way Blvd., Toronto, ON M9W 6M6  
강창석 / 이규준 / 윤기태 선교사  
416.996.0345 / 416.888.2262  
Kroffice\_Canada@Wycliffe.ca

#### 서부사무실 KM BC Office

604.881.105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실창준 간사 604.221.5838  
changjoon\_sull@wycliffe.ca  
권오찬 간사 604.313.8098  
gowithkwon@yahoo.ca